

백운규 장관, 체코 총리내정자와 원전협력 협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체코에서 외국 각료로는 최초로 안드레이 바비쉬 차기 총리 내정자를 만나 양국 간 원전 분야를 포함한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바비쉬 총리 내정자는 지난 11월 총선에서 체코 제1당이 된 ANO당의 대표로 차기 총리 선출이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 백 장관은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참여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한국과 체코 기업이 협력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춘섭 청장,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박춘섭 조달청장은 5일부터 7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국제 워크숍 및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연합(UN) 등 3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15개국의 공공조달분야 전문가와 해외바이어가 초청됐다. 행사 기간 동안 조달 워크숍, 1대1 수출 상담회 등 효율적인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김정일
자유무역협정교섭관 김기준
과장급 진보
통상협력총괄과장 양병내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박재영



이동일
한국 시그레 가공송전연구회장

시그레 한국위원회 가공송전연구회(회장 이동일)는 글로벌 가공송전 기술의 트렌드를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국내 가공송전 기술의 발전과 내실화를 이끌어온 단체다. 연구회는 최근 기술세미나를 열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 첩합과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조망했다. 세미나 현장에서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이동일 회장을 만나 최근 가공송전 분야 이슈에 대해 들었다.

세미나 현장에서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이동일 회장을 만나 최근 가공송전 분야 이슈에 대해 들었다.

“일각에서는 건설 붐이 끝나, 가공송전 시장의 미래가 어둡다는 시각이 있어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는 송전철탄에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적용하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슈퍼그리드를 통한 동북아시아 전력 허브로 거듭나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겁니다.”

이동일 가공송전연구회장은 “HVDC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계통연계, 즉 슈퍼그리드 시장은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45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며 “최근 신정부에서도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가

리는 서울 등의 도심지에 전력수요가 몰려 있고, 영토의 70%가 산지라, 가공송전 분야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소 경과지에서 최대 전력수송 효과를 얻기 위해 765kV 2회선 도입을 고려했고, 세계 최초로 구축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전문가들의 관심이 몰리는 계기가 됐어요. 세계 5대 시험센터인 고향전력시험센터가 만들어지고, 가공송전분야 강국으로 올라서게 됐죠. 이와 같은 변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를 열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회장은 “가공송전연구회는 그동안 국내 가공송전 기술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2030년 슈퍼그리드 시장 450조 규모로 성장할 것”

산학연 모임·연구개발 활성화로 전문성 확보할 것

시작 성과를 요구하며 정책이 반영하는 기류가 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양사태, 탈원전, 탈석탄화로 인해 친환경 첩합기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송전 첩합으로 인한 환경,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송전철탄의 이미지를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송전기술 분야에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765kV 2회선 도입 등 세계가 놀랄 만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국내 송전기술의 발달은 765kV 도입으로 촉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성 정립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설계운영, 시공, 첩합기초, 전선, 여자 급구 등 5개 분과별로 산학연 모임과 연구 개발 등을 활성화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연구회가 공론화했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첩합분야 환경친화형 콤팩트화 연구와 그 결과를 한전 첩합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량 중심의 한전 첩합구매방식을 첩합 설계 선진화하는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진다면 연구회의 역할 확대와 합리적인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김병일 기자 kube@

본지, 4차 산업혁명·에너지전환 독일 현장탐방



전기신문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박 8일간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의 롤 모델인 독일 현장탐방단을 파견했다.

이번 탐방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전력 분야 공공기관과 SK E&S,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민간 전력회사 관계자 25명이 참가했다. 이들 탐방단은 4차 산업혁명의 독일 대표 기업 중 한 곳인 피닉스컨택트 본사와 공장 견학을 통해 독일 인더스트리 4.0 관련 최신 트렌드와 기술 등을 둘러 봤다.

또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관련 대학,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인 OWL 방문을 통해 조립이 복잡한 공정에 작업순서를 알려주는 스마트 작업 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유럽 최대의 전기자동차 제품 박람회인 'SFS IPC Drives 2017'을 방문해 지멘스, 보쉬, 피닉스컨택트, 슈나이더 일렉트릭, 미쓰비시 등 자동차 분야 대표기업들의 수준 높은 인더스트리 4.0 기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파워 ESS 배터리 팩'을 방문해 변전소,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 등에 ESS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현장도 둘러봤다. 이밖에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찾아 독일경제와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동향, 인더스트리 4.0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들었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손운태 전력거래소 처장은 “산·학·연·관 이 협업해 일종의 표준인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교훈삼아 IT 강국인 우리나라도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공동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정형석 기자 azar76@

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 회원 송년의 밤...업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 포상도

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회장 김중두)는 5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호텔캐슬에서 '2017년 회원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과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형주 본지 사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회원사 650여명, 박형덕 한전 경기지역본부장, 민병현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안낙균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회장, 조성재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도회장 등 위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지역 전기공사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중두 경기도회장은 송년사에서 “지난 1월 5일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5대 경기도회장에 당선된 이후 변하지 않는 원칙과 신념 아래 '하나뿐 화합하는 경기도회'란 슬로건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힘썼다”며 “한 해 동안 경기도회 임원들과 회원사들의 열렬한 지원과 관심 덕분에 많은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재선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도회 회원들이 보여준 열정이 우리 업계 위상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한 한해였다”며 “오늘 송년의 밤 행사를 위해 고생하신 김중두 회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행운이 깃들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대원 기자 ydw@



서부발전, '기후 Week 2017' 산업부 장관상 수상

한국서부발전(사장 직무대행 정영철)이 5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기후 Week 2017'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동섭 서부발전 기술본부장이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장관상을 수여받고 있다.



2017 건설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중합건설사 전기협회(회장 홍성진, 이하 건설협)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합건설사 전기직 팀장들로 구성된 건설협은 12월 1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웨딩홀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사 전현직 전기직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사업예산 등을 의결했다.

Advertisement for KyongBo electrical equipment. It features the KyongBo logo, a central graphic with '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 and '품질' (Quality), and various product images like digital meters, power transformers, and relays. Text includes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d '가성비' (Value for money). Certifications like ISO 9001 and KEPIC are also listed.